

#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어르신 일자리 행진다

광주도시공사와 협업 나서

환경관리 182명 취업 목표

내년엔 상근 전환 예정

노년들에게 가장 큰 고난은 경제력 상실에 따른 공핍이다. 은퇴 등으로 경제적 수명이 짧아졌지만, 육체적인 수명이 길어지면서 가난한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광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에도 일할 능력을 갖춘 실버들의 취직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일보다 어렵다고 한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과 연계해 노인일자리 개발에 나선다. 노인들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환경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모두 182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목표다. 이 사업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이웃들을 도우면서 일하표 보람을 느끼는 일석이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의 맞춤형 임대주택 주변 환경 정화 및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 등을 위한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광주도시공사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은 지난 1일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협약을 체결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광주도시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들의 환경 개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와 연계, 추진하게 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일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르신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182명은 월 30시간 활동하며, 정부 보조금과 도시공사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월 평균 21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도시공사는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2017년부터는 상시 근무하는 일자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시니어클럽)과 함께 도시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과 연계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을 추진한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손길이 필요한 곳, 관심을 뒤야 할 곳에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다"며 "한 시대를 젊어졌던 프로그래머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광주도시공사 062-600-6820, 광주시니어클럽협회 062-223-881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市, 공유문화 참여 단체·기업 지원



광주시는 민간의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육성 사업비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

이런 공모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공유육성사업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총 사업비는 8500만원(한 사업당 1000만원 내외)이다.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광주광역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단체' 명칭 사용 및 '공유광주' 로고 사용권 부여 ▲시 관련 부서 협업 지원 ▲공유육성사업비 신청 자격 등이 제공된다.

공유육성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는 공유

광주웹사이트와 공유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정공모와 공유도시 광주를 위한 자유제안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공모로 나눠 실시한다.

단, 사업비 지원 신청은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선정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참여혁신단(062-613-6342)으로 오는 1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초에 발표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 단체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재철 시 참여혁신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여러 공유 단체와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주시의 공유경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15일부터 실시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안전사각지대와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 현장중심의 집중 점검활동을 벌이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국장 등 간부공무원, 시 산하공공기관 단장장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을 전후한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광주시 문용운 시민안전실장은 "쾌적하고 따뜻한 안전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부패는 버리고, 청렴은 살리GO' 청렴슬로건 최우수

광주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청렴슬로건 최우수작에 '부패는 버리고, 청렴은 살리GO'를 선정했다.

우수작으로는 ▲청렴한 당신! 광주의 미래입니다 ▲청렴광주, 시민이 만들어 갑니다 ▲나를 지킨 청렴의지, 더불어 이룬 청렴광주 등이 선정됐다.

시는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을 자율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간 공모를 실시, 접수된 슬로건 122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자체 평가와 전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4개를 선정했다. 최우수 청렴슬로건은 공무원서와 각종 인쇄물, 현수막 등 홍보물 등에 게시할 방침이다.

문의는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갑질 고용주 꼼짝 마”

광주시 '알바지킴이 앱' 지자체 최초 개발

광주시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과 청소년의 고용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이일부터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은 최저임금과 알바심계명 등 정보를 볼 수 있는 알바필수상식,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접수 및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예상 급여 계산 및 내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급여 계산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민선6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증진사업'과 관련해 청년·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자는 시의회 임태 의원외의 제안에 따라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안드로이드 버전과 애플의 IOS 버전으로 개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알바지킴이를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



알바지킴이 앱

다.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이 생활화된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조건과 노동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안전광주 그리기' 어린이 공모전

광주소방본부, 내달 5일까지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전남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공동으로 1일부터 5월5일까지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16회 안전광주 그리기'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상상화와 포스터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생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상상화 부문에 응모할 수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은 포스터에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생활 속 안전사고 사례나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예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면 된다.

응모 작품은 학교 또는 개인별로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중 77명을 선발해 광주시장상과 총 38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입상자 명단과 수상 내역은 5월31일 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fire119.gwangju.go.kr) 또는 전남대병원 누리집(http://www.cnuh.com)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는 동부소방서(062-613-8432), 서부소방서(062-613-8532), 남부소방서(062-613-8632), 북부소방서(062-613-8734), 광산소방서(062-613-8834)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소방본부, 현장지침 이해도 평가 1위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최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 평가'에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처치와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했다. 시 소방안

전본부는 전국 평균 85.24점 보다 8.76점 높은 94.00점으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마재운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평가로 광주시의 구급서비스를 인정받았다"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회사 사정상 급매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후 20억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3억)후 연 5억원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